



"내년에 경남에서 만나요" 제90회 대전 전국체전이 26일 막을 내렸다. 이날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날린 풍선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14위, 전남 10위... 전국체전 폐막

대전에서 7일간의 열전을 펼쳤던 제90회 전국체전이 26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금 45·은 40·동 57개 종합점수 2만9천984점으로 14위, 전남은 금 48·은 47·동 66개 종합점수 3만7천799점으로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경기도는 금 140·은 133·동 134개를 따내는 등 종합점수 7만8천236점으로 2위 서울(5만2천798점)을 제치고 8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3위는 개최지인 대전(5만3천427점), 4위는 경북(5만2천437점)이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여자육상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작성하며 금메달 4개를 목에 건 김하나(안동시청)에게 돌아갔다. 내년 제91회 전국체전은 경남에서 열린다.

총복과 막판까지 13위 다툼을 벌였던 광주는 체조·정구·승마·농구 등에서 선전을 펼친 반면 태권도·레슬링·복싱 등 강종목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한 고등

## 경기도 1위... 광주 역도 전대운·김준선 3관왕 전남 광양시청 불링팀 사상 첫 전 종목 석권

부와 대학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둬 순위 상승에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호남대 양궁팀과 광주이고 하키팀은 예상 밖의 선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조산대 남자농구와 광주대 여자농구는 임상권 집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나 동메달을 따내는 후훈을 발휘했다.

역도·육상·양궁에서는 다관왕이 4명 탄생했고, 사격과 수영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고부 역도에서 전대운(105kg급·정광고)과 김준선(105kg급 이상·광주체고)이 3관왕의 영예를 안았으며, 양궁 기보배(광주여대)와 육상 김덕현(광주시청)이 2관왕의 선전을 펼쳤다. 특히 김덕현은 멀리

뛰기에서 전국체전 5연패의 금자탑도 세웠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 3·은 2·동 3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수확해 동상한 결실을 맺었다.

전남은 요트·정구·씨름·불링·소프트볼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광양시청 남자불링팀은 일반부 5개 종목 모두 휩쓸어 전남의 득점레이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주시청 사이클도 금 3개, 은 3개 등 2개를 획득해 전종목 입상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고등부에선 여수고 요트(금 1개·은 1개)와 여수정보고 유도(금 2개·은 1개)가 각각 예상 밖의 후훈을 발휘했다. 이러한

고등부의 선전으로 지난해 보다 1천점이나 많은 1만6천점을 기록하는 선전을 펼쳤다.

반면 펜싱과 하키에선 목표 보다 낮은 결과를 얻어 아쉬움을 남겼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을 무려 10명이나 배출했다. 광양시청 최복음이 불링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전남 최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훈(불링·광양시청)·나아름(사이클·나주시청)은 각각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신승현·김광욱(이상 불링·광양시청)·이두형(육상·해남군청)·김신애(양궁·순천시청)·정다래(수영·부영여고)·강솔지(유도·여수정보고학교)·김희정(육상·전남체고)이 각각 2관왕에 올랐다.

특히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경기 외에도 도 역점사업인 2010 F1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불턴 이청용 시즌 2호골 폭발

팀 3-2 승리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 중 최근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는 이청용(21·불턴 원더러스)이 시즌 2호골을 터뜨렸다.

이청용은 25일 밤(한국시간) 불턴 리버스 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 전반 16분 샘 리켓츠의 크로스를 받아 골 지역 중앙 부근에서 왼발로 골망을 갈랐다.

지난달 26일 버밍엄과 원정 경기에서 후



반 9분 교체 출장해 자신의 첫 골을 뽑아낸 지 한 달여 만에 정규리그 3경기만의 득점포다. 이청용은 이 골로 잉글랜드 무대 4번째 공격포인트도 기록했다. 이청용은 활발한 몸놀림으로 후반 21분에는 파브리스 무암바에게 멋진 패스를 전달했지만, 무암바의 슈팅이 수비수에게 걸려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불턴은 3-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끝난 빛고를 광주1315 축구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강중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광주 1315 축구 최강전 서강중 초대 챔피언

치명종 2-1 꺾어

서강중이 제1회 빛고를 광주 1315 축구 최강전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서강중은 지난 2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빛고를 광주 1315 축구 최강전 치명종의 경기에서 2-1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인 서강중에게는 삼금 3백만원과 우승트로피 및 축구용품이 지급됐다. 준우승을 차지한 치명종에게는 삼금 1백5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공동 3위에 오른 동산중과 지산중은 각각 1백만원의 삼금을 받았다.

대회 최우수상은 서강중 주장 박성민에게

돌아갔다. 8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리며 팀 우승을 이끈 서강중 손찬은 최다득점상을 수상했다.

손찬은 "친구들과 공을 차고 놀았던 것이 경기에서도 부담없이 이어질 수 있었다. 3학년 졸업생을 앞두고 있는데 친구들과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간직하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득점왕 소감을 밝혔다.

대회를 개최한 광주삼부축구단의 신이섭 단장은 "첫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내년 시즌에는 4월부터 시작하는 연중 대회로 이어갈 예정이다"며 "참여 학교수도 대폭 늘려 학생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성료

광주 2009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연중 사업으로 진행된 이 대회는 청소년생태경연대회·3·3 길거리 농구·축구 등 3개 종목이 치러졌으며 1천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특히 댄스와 축구는 매년 참가팀이 늘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주축목으로 자리잡

아 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온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축구대회는 총 60개팀(중등부 20개팀, 고등부 40개팀) 900여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창준 회장은 "건전한 생활체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밝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면서 "광주지역 대학생 생활체육축제 한마당도 내년 6월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 종목 축소·기준 기록제 등 전국체전 '개혁' 시동

제90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기간인 지난 21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내 대회장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위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전국체육대회 운영개선안'이라

는 문건을 들고 있었다. 이 자리는 국내 최대의 체육대회이면서도 규모의 비대화와 경기력 저하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국체전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전국체전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15년 전부터 나왔지만 그때마다 경기단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었다. /연합뉴스

###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535평)
- 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면적

구분	면적(㎡)	용도
지하 1층	1147.07	주차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우나, 체육시설 등
- 매대가 : 23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 011-625-8153

###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 ▶광주 북구 태평동 영락공원 부근 답 884㎡(264평) 매대가 3,500만 원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물 매매, 민원소지 없음 -도로접, 기록요지 및 주말농장 적합
- ★전남 화순군 이암면 초빙리 임야 104,727㎡(32,000평)매가 1222만원 -관리지역 일부포함. 육은계곡 및 저수지 옆엔 쉼나무 산사우사, 목장용지 가능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임야 및 밭 73,000평, 평당 1222천 -도로접 임야이며 전 수평높은 관목나무 숲. 밭토지에 80평정종지, 밭장소재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거리 임야 1.670평 평당 10만 -계획관리지역 약 800평포함, 차량전입가능. 전방전환호 사할 및 전방주매지 적합.
- ▶전남 담양군 남면 하천리 대지 및 전 683㎡(500평), 평당 800만 -담양군이 비리보이는 주변, 전방전 매 우 양호. 실사용가능 수 9000평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거리 임야 1.90,528㎡(5만7,834평), 평당 325천원 -2차선도로에 접한 목장용지이며 현물 은 담으로 사용
- ▶전남 보성군 겸복면 수남리 임야 2,587,157㎡(77만6,588평), 평당 1만 -토지전계 인도개설, 현 밤나무 조림지, 80%이상 개일 가능, 토질 및 전망 양호
-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이흥리 임야 28,185㎡ (8,700평)가격은 협의후 결정 -차량전입 가능, 현 담배농장 및 단감농장

필요하신 각종 토지매도 및 임야 취선을 대해 구해드립니다.

###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률장 위치: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면적(㎡)	잔액(㎡)	최고가	비고
대전	서구	1965	1965	494000	1965
	유성구	287/151	287/151	1182000	1182000
부산	중구	1174/1927	1174/1927	494000	1174/1927
	동구	2028/1960	2028/1960	791000	2028/1960
대구	중구	367/1042	367/1042	898000	367/1042
	동구	2042/2738	2042/2738	1929000	2042/2738
서울	서구	182/170	182/170	1929000	182/170
	중구	2042/2738	2042/2738	1929000	2042/2738